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고독과 고난에 맞서는 인간 의지 표현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배가 무지무지 고프면 밥을 먹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배가 고프면 사람은 아무래도 허겁지겁 밥을 먹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걸스럽게'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계걸스럽다는 표현에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허겁지겁'이나 '계걸스럽다'는 표현이 자신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반듯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허겁지겁: 조금만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습

계걸스럽다: 육식했 마구 먹어대다.

고비: ①편지 같은 것을 찢어 두는 물건. 종이로 주머니나 상자처럼 만들거나 종이를 '+'자 모양으로만 들어 벽에다 붙임. ② 고이, 곱게

고살: 마을의 좁은 길목. '고살고살'(좁은 골목마다). 또는 사타구니 사이.

고수레: ①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고 하여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면서 하는 소리. ② 흰 떡을 만들 때에 찰가루에 끓는 물을 흘려 뿌려 섞어서 물이 끓고루 퍼지게 하는 일. ③ 흰 떡 따위를 반죽할 때 끓는 물이 끓고루 가게 하는 일. ④ 무당이 굿할 때 들에서 음식을 떼어 던지며 부르는 소리. 또는 그 일.

안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헤밍웨이작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은 1952년에 발표됐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예요. 이 소설에는 헤밍웨이 나름대로의 실존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헤밍웨이는 노인을 통해, 어떠한 일에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데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읽을 적에는 노인의 집념이나 도전 정신에 감명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모하게 고기를 잡아 왔지만 '고기가 뼈만 남았더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인쇄심도 부족하다고 혹은 힘들고 험한 일을 잘 안하려고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소설을 읽다보면 강인한 정신력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중편소설로 단일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상징적, 도전적, 사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소설로 배경은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바다이지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간결하고 힘차며 상징적이고, 사실적인 문체가 돋보입니다. 경험 중심적 경향을 나타냅니다. 제제는

높은 어부의 고기잡이지만 운명의 험난함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 삶은 덧없으며, 이 세상살이에 괴로움이 반복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절대 고독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 현실의 고난에 맞서 싸우는 불요불굴의 정신이 작가가 이 소설로 나타내고자 한 중심 생각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쿠바섬의 해변 오막집에 혼자 사는 홀아버이. 그는 오래 전에 아내를 잃고, 이제는 고독한 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노인을 좋아하는 마블린이란 소년이 이웃에 살고 있어 가끔

헤밍웨이 생존 중 마지막 소설

간결하고 상징적인 문체 돋보여

단일 구성의 중편...노벨상 수상

먹을 것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또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과 함께 바다에 나가는 것을 양친으로부터 금지당하고 있다.

노인은 너털너털 껌뻐 웃을 단 작은 배로 멕시코 만류까지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벌써 84일간이나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85일째의 아침 일찍, 노인은 혼자서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서서히 뒷물 쪽으로 저어 나간다. 점심때쯤 마침내 노인의 낚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큰

뱀 새치 한 마리가 걸려든다. 그러나 그의 배보다 2피트나 큰 뱀 새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이 낚시 줄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고기와 싸우는 동안 해는 지고 어둠이 찾아온다. 이틀째가 되어도 뱀새치는 여전히 버티며 노인을 괴롭힌다. 노인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 고등어의 생고기를 먹고 맹물을 마시면서 원기를 낸다.

다시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른다. 노인은 피로에 지쳐 꾸벅꾸벅 잠이 드는데, 이때 그는 사자의 꿈을 꾸다. 사흘째의 해가 떠오르자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거대한 뱀새치가 바다 위에 몸을 드러내자 노인은 그 옆구리 배에다 작살을 들이 박는다.

마침내 노인은 고기를 배 옆에다 갖다 붙이고서 밧줄로 끌고 가기로 한다. 전장 18피트, 무게 1천 800파운드가 되는 대어가 잡혔으므로 노인은 스스로 운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이 대어와 함께 육지로 돌아오는 도중 큰 상어 떼에게 습격을 받는다.

노인이 상어 떼와 싸우면서 마침내 육지에 닿았을 때, 모처럼의 대어는 배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오막집으로 들어가 풀 한 잔을 마시고, 침대 속으로 찾아 든다. 노인은 곧 깊은 잠에 빠져, 사자 꿈을 꾸게 된다.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가 생존 중에 발표한 마지막 소설이란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편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육 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의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야한 생각에 공부야 안 돼요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나오고 야한 동영상이 보고 싶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D·비밀이예요)

시간별로 계획 세워 집중해 보세요

공부는 안 되고 야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니 자신을 스스로 조절 못하는 것 같아 괴롭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그런 성관련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유를 가지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답니다.

1. 우선은 혼자서 공부를 하기 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농구, 축구, 배구, 수영, 헬스, 등산 등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면 잡념이 적어지게 되지요.
2. 일상생활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세요. 공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품귀 시간별로 계획을 세워 집중해 보세요. 또한 공부할 때는 자신 있고 재미있는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집중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면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 하다보면 자신이 세운 계획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학습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면 최절단 경험할 뿐이니 잘 조절하세요.
3. 가능한 한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포르노 비디오 등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에 많이 보지만, 그 영상이 머릿속에 박혀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오래오래 가거든요. 또한 그런 음란물에 접하다 보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학습보다는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성문화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한아름심리상담센터)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기혈수 제품

다이아터밴드 5개 15,000원	쑥뜸 온열구멍 2개 10,000원
물소분팔사 1개 15,000원	밸런스스테이핑 10m 25,000원
원형패치 90매 10,000원	수액시트 50,000원

화제의 신간
기혈수비법이란?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통과 관절염을 가장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무료 기치료 일정
일정: 매주 목요일
시간: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장소: 부산지하철1호선 정전동역 역사내 강당 (3번출구인접)

저자: 남산스님
변형사관
형라/값 10,000원

도서출판 문의: 080-999-1080
국부카르마 | 입금계좌: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범당) 전기초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범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간전지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청사초 등 및 초롱 결이대

연 등(정품)
범당용(공당용),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